

 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8.7(화)	
책 임 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강 영 수(02-2100-2660)		담 당 자	서 병 윤 사무관 (02-2100-2663)	

## 제 목 : 머니투데이 8.7일자 「금융위, 사모펀드 투자자 수 49 → 99인으로 확대」 제하의 기사 관련

### < 기사 내용 >

- 머니투데이는 8.7일자 “금융위, 사모펀드 투자자 수 49 → 99인으로 확대” 제하의 기사에서
  - “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49인 이하인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.”
  - “또 사모펀드 판단 기준을 청약 권유자에서 실제 투자자로 변경하기로 했다.” 고 보도

### < 해명 내용 >

- 사모펀드 투자자 수 및 사모펀드 판단 기준 변경 등과 관련,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.